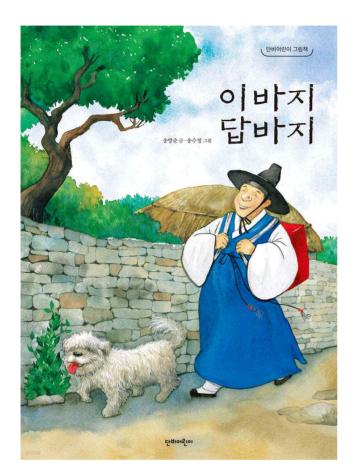
## 이바지 답바지



- **글쓴이** | 송방순
- 그린이 | 송수정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발행일 | 2024년 3월 15일
- 판 형 | 양장본 216\*298mm
- 페이지 | 56쪽
- **값** | 15,000원
- ■ISBN | 978-89-6301-337-4 77810

#옛이야기 #전통혼례 #우리문화그림책 #결혼식 #우리나라 #문화

## ◆ 어떤 내용인가요?

『이바지 답바지』 그림책은 우리나라 전통 혼례 문화의 하나인 이바지 풍습을 소재로 모자란 신랑 석이가 신부인 분이네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예요. 이바지란 혼례를 치르고 난 뒤에 신붓집에서 신랑집으로 정성껏 음식을 차려 보내는 풍습을 말해요. 음식을 받은 신랑집에서는 그에 대한 답으로 답바지 음식을 보냈지요. 하지만 이 그림책에서는 신랑집에서 먼저 신붓집에 이바지 음식을 보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또모자란 석이는 어머니가 준비해 준 이바지 음식을 무사히 신붓집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옛 혼례 문화를 배우고, 공평함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는 것이었을까요? 빈칸을 채워 보세요.
★이바지는	의 집에서	의 집으로 보냈어요.
★답바지는	의 집에서	의 집으로 보냈어요.
Q2. 우리나라 전통	· 혼례와 관련된 단어와 뜻을 ;	올바르게 이어 보세요.
원삼		혼인을 중매하는 할멈
매파		신부가 입는 혼례복
사모관대		전통 혼례에서 신랑이 착용하는 복장
Q3. 현대의 결혼식 보세요.	과 과거의 결혼식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다른 점을 세 가지 적어
하나,		
둘,		
셋,		

Q4. 다음 대화에서 '멀다'라는 단어를 각각 어떻게 다르게 썼는지 적어 보세요.

매파: 진사님, 댁 아드님이 좀 모자란 건 말하지 않았구먼요. 그쪽 처자도 착하고 총명하긴 한데,  $\underline{\mathbf{U}}$   $\underline{\mathbf{U}}$  흠이니까요.

허 진사: 먼 거야 문제 될 게 없지. 고맙네, 고마워!

매파:	
허 진사:	
Q5. 다음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석이의 성격을 써 보세요.	
-그렇게 혼삿날은 잡혔고, 석이는 장가를 가게 됐지. 동네 아이들은 석이에게 뭐라도 주고 싶어 장독대에서 된장과 간장을 펴 왔어. "색시랑 맛나게 먹어."	
- "처사님, 이리 땅에다 시주를 하면 어쩝니까?" 스님이 합장을 하고 묻는데, 석이가 스님 행색을 보니 옷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비쩍 밑불쌍해 보이는 거야. "원래 땅에 떨어진 것은 줍는 사람이 임자랬어유."	<b></b>

- Q6. 석이는 왜 장모에게 음식을 보여 주기만 했나요? 이유를 골라 보세요.
- ① '골'만 보시라고 전한 어머니의 말을 오해해서
- ② 색시에게 먼저 음식을 주고 싶어서
- ③ 장모님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없는 것 같아서
- ④ 삽살개가 먹던 거여서
- ⑤ 장인과 함께 있을 때 주고 싶어서

17. 섭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이는 섭이를 만나서 어떻게 알아보았나요?
)8. 다음 중 섭이가 처갓집을 찾아가며 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D 스님이게 이바지 음식을 주었다.
② 우물가에 있던 처자에게 우물물을 얻어 마셨다. ③ 우물물을 얻어 마신 뒤에 처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이바지 음식을 주었다.
① 삽살개를 따라 개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해 짐을 줄였다. ⑤ 삽살개와 이바지 음식을 나눠 먹었다.
29. 시각장애인이었던 분이는 어떻게 눈을 번쩍 뜨게 되었나요?
Q10. 아래 상자 속 글을 읽고, 내가 생각하는 '공평함'은 뭔지 적어 보세요.
잔칫날에도 허 진사 댁은 지위가 높건 낮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잔치에 초대했지. 공평해야 순리대로 흘러간다고 하면서 말이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잔치에 초대했지. 공평해야 순리대로 흘러간다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잔치에 초대했지. 공평해야 순리대로 흘러간다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잔치에 초대했지. 공평해야 순리대로 흘러간다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잔치에 초대했지. 공평해야 순리대로 흘러간다고

## 참고

- Q1. 신부, 신랑 / 신랑, 신부
- Q2. 원삼-신부가 입는 혼례복 / 매파-혼인을 중매하는 할멈. / 사모관대-전통 혼례에서 신랑이 착용하는 복장
- Q4. 매파는 눈이 멀다의 뜻으로 허진사는 거리가 멀다는 뜻으로 썼다.
- Q6. ①
- Q7. 혼례 날 밤, 석이의 얼굴을 만져 보고 콧망울에 점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
- Q8. ③
- Q9. 석이가 스님에게 받은 약초를 분이의 눈에 붙여 주자,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